

2018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사회계열)

| | | | | | |
|------|--|------|--|----|--|
| 모집단위 | | 수험번호 | | 성명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인과 관계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부딪힌 상태로 정체하면 장마가 시작된다. 즉 '두 기단의 충돌 및 정체'와 '장마'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과 관계를 밝히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과 관계를 밝히면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인과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입증하는 방식은 실험이다. 인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변수 이외의 요인에 의한 설명은 제거되어야 하는데, 실험은 이를 가장 분명하게 제거해 준다. 실험은 모든 면에서 유사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집단을 나누고 특정 집단에만 어떤 변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후 집단 간에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관찰한다. 그러나 사회 현상은 대부분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들이 얽혀서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실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역사적, 문화적 조건의 지배를 받으며 동기나 가치 등 사람들의 주관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간의 내적인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입장이 되어 현상을 이해하려는 감정 이입적 설명 방식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감정 이입적 설명 방식은 인간 행위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일기, 대화록, 관찰 일지, 면접 기록 등의 자료를 선호하며, 이를 통해 연구 대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연구가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으며, 또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특정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인과적 설명 방식과 감정 이입적 설명 방식 중 어느 한 가지만을 배타적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 최근에는 이 두 설명 방식의 장점을 살려 함께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한 가지 설명 방식을 견지하되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설명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 기단: 수백km²에 걸쳐 형성된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

제시문 (나)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하고 평가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은 중요한 문제이다. 기존 연구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동기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투표에 참여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사회적 압력이다. 만족감과 사회적 압력이 각각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 120,000가구의 M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 독려 엽서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지역에서 개인 유권자의 투표 여부가 공개된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만족감과 사회적 압력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A, B, C 세 집단을 40,000가구씩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세 집단에 속한 유권자의 연령, 가족 수, 이전 선거 투표 여부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A 집단에는 엽서를 보내지 않았고, B 집단과 C 집단에는 투표 독려 문구를 담은 엽서를 발송했다. B 집단에 보낸 엽서에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만족감을 강조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첫걸음입니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합시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C 집단에는 "선거 후, 누가 투표에 참여했고 참여하지 않았는지 공개하는 엽서를 지역 주민에게 보낼 계획입니다. 누가 투표했는지 안했는지 당신과 이웃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문구, 즉 사회적 압력의 메시지가 들어간 엽서를 보냈다.

선거가 끝난 후 A, B, C 세 집단의 투표율은 각각 29%, 31%, 38%로 조사되었다. C집단의 투표율이 A, B 집단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과 이웃의 투표 여부가 공개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투표율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제시문 (다)

1977년 4월 20일 광주 무등산 덕산골에서 박흥숙이라는 청년이 철거반원 4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1970년대 국가 주도의 폭력적인 도시 개발과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던 빈민들의 현실이 빚어낸 것이지만, 당시 언론에는 대부분 폭력적인 강제 철거의 현실을 은폐하고 박흥숙과 가족들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기사들만 실렸다. 사건의 진상은 한 대학생이 사건 현장을 찾아가 가족과 이웃을 직접 만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시골에 살던 박흥숙의 가족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광주로 나왔다. 이렇게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온 빈민들은 무허가 판잣집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살았다. 그러나 박흥숙의 가족은 그럴 만한 여유도 없어 흠어져 살아야 했다. 어머니, 여동생, 외할머니가 각각 식모살이를 해야 했고, 박흥숙도 공장에서 일했다. 그의 소원은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것이었고, 1974년 혼자 덕산골에 집을 지었다. 비록 움막과 다를 바 없었지만, 가족들이 모여 살 이 집을 어머니에게 바쳤다. 박흥숙은 검정고시에도 합격했고, 사법시험 공부를 했다. 법관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의 권익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7년 전국체전을 앞둔 광주시는 무등산 일대의 판잣집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했다. 박흥숙에게도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이 날아왔지만, 차마 자기 손으로 집을 부술 수 없었다. 철거반원들이 들이닥치자, 박흥숙과 가족들은 순순히 철거에 응했다. 그런데 철거반원들은 다시 건물을 짓지 못하게 불을 질러 버렸다. 모은 돈을 집 천장 위에 넣어 두었던 박흥숙의 어머니는 집으로 달려갔으나 떠밀려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철거반원들이 근처에 살던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의 집까지 불태우자, 박흥숙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철거반원들을 위협해 빨랫줄로 묶었다. 이들을 끌고 광주시청으로 가서 시장과 담판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철거반원들이 저항하자 흥분한 박흥숙은 쇠망치를 휘둘렀다. 4명이 죽었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박흥숙은 법정에서 살인에 대해서 깊이 참회했다. “나의 죄는 백번 죽어도 사죄할 길이 없다. 나 같은 기형아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어떤 극형을 주시더라도 달게 받겠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항변했다.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불까지 질러, 돈이나 봄에 뿌릴 씨앗까지 깡그리 타고 말았다. 돈 많고 부유한 사람만이 이 나라의 국민이고, 죄 없이 가난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각계의 구명 운동에도 불구하고 박흥숙은 1980년 12월 24일 사형을 당했다.

박흥숙 사건은 1년 뒤에 출간된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재개발에 밀려난 난쟁이의 가족들을 떠올리게 한다. 30년 전 소설 속에서 집을 잃고 밀려난 빈민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처지가 되어 있을까? 더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도 철거와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빈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계고장: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제시문 (라)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 수준도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선천적인 재능이 대물림되기 때문인가 아니면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더 효과적으로 양육하기 때문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영국의 학자들은 입양되어 자란 21세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은 생후 3개월 이전에 입양되었으며, 영국의 입양 정책에 따라 입양 당시 친부모에 대한 정보, 입양을 희망하는 부부의 특성이나 요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입양되었다. 따라서 입양한 부모의 교육 수준은 입양된 아기의 선천적 재능과 관련성이 없다.

입양아 집단과 비교하기 위해 친부모 밑에서 자란 같은 수의 비교 집단을 선정하였다. 두 집단은 나이, 성별, 인종, 7세 시절의 읽기 능력 평가 점수 등에서 비슷했다. 그리고 비교 집단의 친부모들은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 등에서 입양아 집단의 입양 부모들과 비슷했다. 이처럼 두 집단은 자녀와 부모 모두 유사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입양아 집단이 16세 때 치른 국가 학력 시험 성적과 입양 부모의 교육 수준을 조사한 결과 둘 사이에는 관계가 거의 없었다. 이에 비해 비교 집단의 아이들은 친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16세 때 시험 성적이 좋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일부 아이들의 재학 시절 3년간 심층 면접 기록을 분석한 결과 입양아 집단보다 비교 집단의 아이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두 가지 설명 방식이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에 각각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분석하고, 각 제시문에 드러난 설명 방식의 장단점을 평가하십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가)의 주장을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밑줄 친 부분에 답하십시오. (1,000자 안팎, 50점)